

## 7월 1일 바뀐 법정계량단위 평형 계산이 어려워요

‘평’ 단위로 아파트 넓이를 표시해오던 것을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 기준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와 업체의 불멘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글 | 정영철 파이낸셜뉴스 기자

“221㎡이면 몇 평이죠? 예, 67평입니다.”

“㎡당 806만 원이면 평당 얼마나 되죠?” “평으로 환산하면 2970만 원입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D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객과 도우미들 사이에 달라진 도량형 표기에 따른 평형과 가격을 놓고 이런 내용의 질문과 대답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종전 같으면 팸플릿이나 유닛에 쓰여진 평형과 평당 가격을 보고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일일이 도우미에게 물어봐야 한다. 일부 방문객들은 “종전에 쓰던 단위를 안 쓰고 불편하게 왜 바꿨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1㎡는 0.3025평이며, 1평은 3.3058㎡입니다.”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부동산시세 정보 사이트에는 ‘법정의무계량단위(㎡) 의무사용안내’라는 별도의 코너가 마련됐다.

###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 곳곳서 불만

지난 7월 1일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금지되면서 부동산정보업체와 주택업체의 모델하우스에서 평을 ㎡로 변경했지만 실수요자는 불편하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윤 모씨(31)는 전세집을 알아보려고 국민은행 사이트에 방문했다가 당황했다. 30평형대 전세를 찾고 있는데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던 것.

102.47, 112.39, 148.76, 214.87... 평이 ㎡로 바뀌면서 숫자가 커지고 소수점까지 나와 복잡하기 짝이 없었다. 윤씨는 “할 수 없이 ‘법정의무계량단위(㎡) 의무사용안내’ 코너로 들어가 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했다”면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원하는 평형의 아파트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에 문을 연 모델하우스들 역시 급하게 팸플릿 등을 ㎡로 바꿨지만 해당업체나 방문객 모두 적잖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모델하우스에는 ㎡ 단위에 익숙지 않은 예비 청약자들의 문의가 늘어 이를 설명하느라 통화 시간이 더욱 길어지고 있다. 모델하우스를 찾은 박 모씨(57세)는 “갑자기 이렇게 바꾸면 더 헷갈리기만 하지 무슨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바꾸려면 팔호 안에 같이 써넣던지...”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일선 중개업체들 또한 ㎡를 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의 P부동산 관계자는 “업으로 하는 나부터가 감이 오지 않는데 손님들에게 어떻게 ㎡를 쓸 수 있겠냐”면서 “계약서 쓸 때만 빼놓고 다 예전처럼 평으로 쓰고 상담한다”고 전했다.

### 부동산정보업체·관련 협회, 단제도 곤혹

대부분 미리 준비해온 부동산 정보업체들도 그동안 평으로 써 온 데이터들을 모두 제곱미터



로 바꾸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분양 자료를 만들면서 평당 분양가로 쓰던 것을  $m^2$ 당 분양가로 해야 할지,  $10m^2$ 당 분양가로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면서 “어떤 게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갈지 확신이 안 선다”며 당혹스러워 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는 이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회원중개업소로부터의 전화 문의에 시달렸다. “평과 병행표기를 하면 안 되느냐” “ $m^2$ 로 환산하고 나서 가격은 어떤 식으로 매기면 좋으냐” 등이 주된 질문이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각종 홍보 전단과 협회보를 통해 홍보를 했지만 아직 헛갈려 하는 회원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면서 “병행표기가 안 된다고 하면 다들 당황하면서 불만을 표출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정부도 헛갈려서 갈팡질팡

특히 정부도 소수점 이하를 어떻게 표기할지를 놓고 갈팡질팡하다 뒤늦게 통일안 마련에 나섰다. 방법은 소수점 이하를 절삭하는 것. 예를 들어 전용면적  $50.38m^2$ 인 경우  $50m^2$ 로 표기하는 것이다.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도량형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는 새 법정 도량형을 정수 단위로 쓰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달 초 법정 도량형을 도입했지만 소수점 얼마까지 표기해야 하는지의 규정은 없어 정수, 소수점 첫째, 소수점 둘째 등 표기 방법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건교부는 소수점 절삭, 국민은행은 소수점 둘째자리, 스피드뱅크는 소수점 반올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기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소수점을 절삭해서 정수로 표기하는 것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편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주택협회에 이를 요청한 상태이고 건교부에서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측도 “산자부에 정수로 쓰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산자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는 건교부는 실거래가 등을 공개하면서 소수점 올림 방식으로 정수 단위를 표기했지만, 이럴 경우 과대 광고가 될 수 있어 절삭하는 방법을 택하게 됐다. 건교부 방식은 32평을 환산해  $59.12m^2$ 으로 나오면  $60m^2$ 으로 절상해 실제보다 크게 계산되는 오류가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존 건교부 방식을 모델하우스나 광고 등에 쓰면 과장 광고로 단속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정보업체들은  $m^2$ 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끝마쳤거나 진행중이고, 소수점 절삭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일부에서는 소수점을 계속 쓸 가능성도 있다. 한 정보업체 관계자는 “이제 겨우 소수점 반올림 방식으로 표기 전환을 끝냈는데 또다시 절삭하라는 표준안을 내놓으면 어떻게 하나”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

